

미국산 수입 쇠고기 품작마!

‘전남산 브랜드 한우’ 나가신다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최근 한달새 1천200t이 팔려나가는 등 국내시장을 파고드는 가운데 ‘지리산 순한한우’ 등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가 수도권 시장 평정에 나섰다.

19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지리산 순한한우가 국내 축산물 단일 브랜드로서는 처음 롯데쇼핑에 납품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한데 이어, 함평천지한우 등이 수도권에 상륙하면서 올해에만 5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남한우가 상승기를 때리는 것은 각 브랜드사업단이 치밀한 프로젝트에 따라 혈통·사료·사양관리를 진행시켜 1등급 고급육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마케팅이 주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리산 순한한우는 전남 동부권 고흥, 곡성, 순천·광양, 구례, 보성, 여수, 장흥의 7개 지역축협이 연합해 전

함평천지·지리산 순한한우 등 ‘고급육’ 승부 수도권서 인기 급상승... 올 매출 500억 기대

국에서 처음 출범시킨 한우 공동브랜드다.

2005년 8월부터 롯데쇼핑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전매장과 롯데백화점 일부 매장 등 총 100여개 매장에 입점,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박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순한한우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9월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과 손잡고 역시 국내 농축산물로서는 전국 최초로 한우랜드사업을 추진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0억원 규모의 한우랜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천600

마리의 송아지를 입식했다.

한우랜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으며, 위탁농가에게는 매월 마리당 2만5천원의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안병량 전남농협 축산지원팀장은 “전남농협은 이달 말께 순한한우사업단 및 증권사와 함께 공모형태로 2호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천지한우도 올 초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부천점·수원점에 진출했고, 지난 5월22일에는 국내 최고급 호텔인 서울워커히 호텔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함평축협이 중심이 돼 110호의 농가가 참여한 함평천지한우는 8천 마

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간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인터넷판매, 자체 판매장 등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또 담양의 한우 브랜드인 ‘대숲맑은한우’는 지난 4월11일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8마리를 처음으로 경매해 호평을 받았다.

대숲맑은한우는 이번 경매출하를 계기로 향후 3년간 관내 280농가가 거세우 2천500여 마리를 서울공판장에 상장하게 됐다.

김수공 전남농협 부본부장은 “앞으로 전남도와 함께 서부권 11개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서부권 한우 공동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라며 “기존의 나주배한우, 영광청비리한우, 영암매력한우 등도 더욱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신세계 이마트 봉선점 개장 신세계 이마트 광주 봉선점이 19일 문을 연 가운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각종 생활용품을 고르느라 분주하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지역 백화점 여름세일 ‘好好’

매출 작년보다 5% 늘어

경기침체속에서도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바겐세일 기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름 정기 바겐세일 실적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5% 안팎으로 늘었다.

광주신세계는 아웃도어 상품 52%, 수영복 98% 등 스포츠 장르 매출이 40% 늘면서 전체 매출이 지난해 세일에 비해 5% 늘었다.

또 화장품 28%, 선글라스 36.4%, 양산 32%, 주얼리 21% 등 잡화의 매출 신장세도 두드러졌다. /장필수기자 bungy@

기아차 대리점協 파업 중단 촉구

기아차 대리점협의회는 19일 최근 노조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리점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아차’라고 하면 17년 연속파업, 4분기 연속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파업을 이어나가는 거대기업에 떠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보유중인 완성차 재고가 있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차량이 공장문을 나서지 못해 고객에게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기아차 구매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전기 수원공장, 광주 이전 검토

경영층, 광산구 물류공장 일대 적합 여부 타진

국내 조명산업의 대표기업인 금호전기가 수원공장을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호전기 경영진이 지난달 광주를 방문, 광산구 오손동 금호전기 물류공장 일대가 이

전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광주이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그간 금호전기 수원공장의 광주이전을 위해 금호전기와 광기솔원을 비롯한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금호전기는 오는 8월30

일까지 광기솔원 창업보육센터에 연구실을 마련, LED조명 연구팀(3명)을 파견해 광기솔원과 공동연구에 착수기로 결정했다.

금호전기는 광주와 오산 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수원공장 이전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공장은 현재 수출라인과 내수

라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수출라인은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며, 내수라인만 지방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수원공장이 광주로 이전할 경우 광산구 오손동의 자사 물류 공장(1만5천평)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내수라인 종업원은 1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전기 수원공장이 광주로 올 경우 광산 광산업과의 직간접 연관은 물론 LED와 조명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알짜 中企’ 취업 노력라

하반기 2개사중 1개사 신규·경력직 채용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2개사 중 1개사는 신입 및 경력직을 총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채용시 우선 대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인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중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604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8%가 신입 및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신입직만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5.3%, ‘경력직만 채용’은 17.3%, ‘신입, 경력직 모두’는 67.4%였다.

중소기업 80% 이상이 7~9월에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경력직의 경우 ‘수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43.4%로 신입의 경우(28.2%)보다 높았다.

채용분야(복수 응답)로 신입직은 ‘영업/영업관리’(42.1%), ‘연구개발’(25.1%), ‘기타 서비스’(24.7%), ‘마케팅’(15.8%) 등이 많았

으며, 경력직의 경우는 ‘영업/영업관리’(36.2%), ‘연구개발’(31.7%), ‘회계/재무’(18.5%), ‘IT/정보통신’(17.7%) 등의 순이었다.

신입과 경력직을 뽑을 때 각각 중소기업의 81.1%와 74.3%가 학력제한을 두겠다고 답한 가운데 이중 신입직은 ‘4년대졸’(37.6%), ‘2년대졸’(30.0%), ‘고졸’(29.5%) 순이었고, 경력직도 ‘4년대졸’(39.6%), ‘2년대졸’(31.5%), ‘고졸’(20.3%)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아시안 뷰티’로 세계 공략

中 상하이서 전략회의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를 실현해 2015년까지 세계 10대 화장품 회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4~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서경배 사장과 본사 및 관계사 등 임원진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상반기 결산 임원전략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중국사업의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해외에서 임

선도형 기술혁신 지원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의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다. 슈퍼컴퓨터 활용분야는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문의 (02)6009-8227~8.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 SASA featuring a photo of a modern interior space and text describ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T 파워텔 featuring a woman holding a mobile phone and text promoting thei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